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나무와 숲’이 어우러진 숨쉬기 좋은 순천 만든다

순천시, 시민과 함께 ‘천만그루 나무심기’ 추진

순천시는 도시 전체를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폭염, 열섬현상 등 기후 변화 대응과 생태문화 실천을 위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것.

시는 공공부문과 공동주택 전경, 시민 자율 식재 등 민·관 협력으로 ‘시민 반려나무 갖기’, ‘순천 시민의 숲 조성’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통해 녹지축 조성과 녹지 공간을 확대해 숲속의 순천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민 반려나무 갖기’는 아이가 출생하면 심는 탄생목과 결혼기념 등에 심는 기념목 등 시민 한 사람이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자신의 반려 나무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시는 반려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시유지나 유휴지 등을 파악해 한평숲으로 조성한다.

‘순천 시민의 숲 조성’은 원도심, 신도심 등 거점별로 조성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2개소를 지어하고 공모를 통해 읍면동별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 녹지축 조성과 녹지 공간을 확대해 숲속의 순천을 만들어 나간다. 시는 그린웨이, 수목터널 등 걷고 싶은 숲길을 조성하고 도로변 가로화단과 도로중앙 분리대 화단 등 가로수 숲길을 만든다.

도심 녹화를 위해 벽면 녹화와 옥상녹화를 실시하고 쌈지숲과 명상숲 등 공동체 숲을 늘리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바람숲 길,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해 남산과 옥천, 동천, 봉화산 등 도심의 생태자원들을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생태 녹지축으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에서는 시민 공감대와 붐 조성을 위해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위원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인원은 50여 명이다.

운동본부에서는 반려나무 갖기 범 시민 운동 전개와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식목일 행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참여자격은 나무심고 가꾸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산림, 조경, 화훼, 정원, 환경 등 관련전문가, 수목관리사 등이다. 신청 방법은 팩스(061-749-4729), 이메일(jhs5149@korea.kr)이나 순천시 공원녹지과로 우편,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사회, 숲과 정원 분야의 전문가, 활동가 등 다양한 의견을 모아 시민들 스스로 나무를 모으고 숲을 기획하고 연출해 가꾸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구례군,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개선 홍보 캠페인 실시

구례군은 12일부터 4일간 2019년 읍·면 순회 ‘군민 공감대화’와 연계하여 노로 바이러스 등 해빙기 식중독 예방과 간소화된 안전한 음식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식중독을 바로 알고 예방하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올바른 손씻기, 음식은 익혀서, 물은 끓여먹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 리플릿을 군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설명하며 홍보물과 함께 배포하였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믿고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양시, 공공기관 갑질 근절에 나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갑질 피해신고 · 지원센터 운영

광양시가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등 공공분야 갑질 근절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갑질 대상을 ▲공무원→민원인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시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직원 등 5개로 개념을 정립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직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피감기관에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는 행동강령 개정과 함께 공직사회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갑질 근절 분위기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 처분과 징계 인사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보성군, ‘행복한 문화를 즐기는 아트 페스티벌’ 공모 3년 연속 선정

보성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19년 문예회관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기획프로그램 ‘행복한 문화를 즐기는 아트 페스티벌’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3,5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보성군은 6월 중 타악 콘서트, 뮤지컬, 음악극 등 3개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2019 행복한 문화를 즐기는 아트 페스티벌’은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며 문화를 즐기고, 행복한 예술축제를 만들어 간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공연 일정은 6월 4일 심장을 울리는 타악 콘서트 ‘아프리카 리듬과 열정을 Anya Fo!’, 6월 20일 직장인들의 애환과 꿈을 담은 뮤지컬 ‘6시 퇴근’, 6월 27일 창작 음악극 ‘보성이네 생일 작전 1탄’이 1일 2회(15:00, 19:30) 상연된다.

올해 열리는 아트 페스티벌로 보성군은 지역민과 아티스트가 함께 소통하고 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세대 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많은 군민들이 관람하여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순천시, ‘생생 관광 스토리’ 공모전 개최

순천시는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스토리가 있는 관광순천을 알리기 위해 ‘순천 생생 관광 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순천 생생 관광 스토리 공모전’은 순천시가 보유한 낙안읍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암사, 송광사 등 역사·문화 자원과 순천만 습지, 순천만국가정원 등 생태·자연자원등 이다.

따라서 순천 음식 이외에도 순천시에 숨어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일상적인 이야기 등을 소재로 전국 공모로 진행된다.

순천시는 지난 11일부터 ‘역사·문화’, ‘지역특산품’, ‘인물’, ‘관광지’, ‘자연·생태’, ‘음식·숙박’, ‘거리·마을’, ‘기타’ 등 8개 스토리 테마를 가지고 공모를 시작했으며 4월 초 까지 작품접수, 심사 등 과정을 거쳐 우수작을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 천만 관광객 맞이를 준비하고 있는 순천시로서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순천 스토리 찾기 공모전을 통해 순천을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 트렌드 도시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순천=황경석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전면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은 투자유치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최근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정보검색 시간을 최소화하는 단순평면구조 디자인을 도입했다. 투자자 의식흐름을 반영한 정보배치와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접속자가 신속·정확하게 투자입지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WHY GFEZ 메뉴는 산업여건, 산업용지, 해운물류, 내륙교통, 투자 성공사례, 정주여건 등 투자유치와 직결되는 내용을 전면에 배치하여 투자자의 편의에 중점을 두었다.

GFEZ에서는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GFEZ 홍보관을 별도로 구성했다. 메뉴는 홍보동영상, 웹툰/웹진, 홍보관 방문신청, 현장포커스, 투자입지에 대한 VR 파노라마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의 단순 현황 자료제공 수준이었으나, 즉시 입주 가능 산업단지 5개 지구(세풍산업단지, 율촌 제1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 황금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는 입체적 효과로 단지 전체를 한눈에 보여 줌으로써 투자자가 현장에 오지 않고도 투자 부지를 볼수 있도록 했다.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투자유치와 개발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완료하고 경자청 최초로 관광분야에서만 제공하는 지도기반 API 서비스 제공하여 산단별 투자정보를 VR, 3D, 파노라마 기법을 도입해 표현함으로 투자자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승호 기자